

남서울 목장 모임(3월 17일)

Worship 찬양과 경배

찬송 218장 /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Words 말씀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본문 마가복음 12:35-44 /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경건해 보이도록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환심을 사지만, 실상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를 자처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함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보시고 그들의 과시에 속지 않으십니다.

[1]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부족한 가르침을 보완하십니다(35-37절).

1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35절)?

2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부르니까(36, 37절)?

<나눔1> 예수님은 서기관들로 인해 '민족의 해방자'로 축소된 그리스도 상을 '인류의 구원자'로 복구하셨습니다. 주님과 말씀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가 온전해지고 풍성해진 경험을 나눠봅시다.

[2]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서기관을 경계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38-44절).

1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38, 39절)?

2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40절)?

3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43, 44절)?

<나눔2>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경건의 모양을 과시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나눔3>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헌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Work & Witness 사역나눔

1. 기도제목 작성

개인별 기도제목을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목장에서 공유해주시고, 교구 목사님께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개강세미나에 배부된 안내지 안에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 목장나눔지 게시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목장별 선교사 배정

해외선교위원회에서 각 목장별로 선교사님을 배정해드립니다. 목장 가족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